

왕의 초상

Royal Portrait Museum

어진박물관



전주시 | 어진박물관



Royal Portrait Museum

어진 박물관

- 발 간 인 | 김승수
- 총괄·기획 | 이동희
- 편집·교정 | 김지은 형지혜 이준수
- 발 행 처 | 전주시·어진박물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44
TEL. 063)231-0190
- 제 작 | 흥디자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1가 1088-7
TEL. 063)241-8082
- 디 자 인 | 장잔희 홍기선
- 발 행 일 | 초판 2010. 11
개정판 2013. 6
201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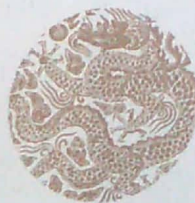
ISBN 978-89-94580-02-9

가 격 30,000 원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어진박물관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재 및 복제를 할수 없습니다.

어진 박물관
Royal Portrait Museum

- 009 인사말 Foreword
- 016 경기전 연표 A Chronology of Gyeonggijeon
- 019 어진실 Royal Portrait Exhibition Gallery
- 049 가마실 Palanquin Exhibition Gallery
- 065 역사실 Historical Exhibition Gallery
- 111 조선왕조유적 Remains of Joseon Dynasty
- 133 논고 태조어진과 경기전 Articles



077

영흥 준원전

Main hall of Junwonjeon, Yeongheung, Original Glass Plate Photo

영흥 준원전은 첫 번째로 세워진 태조진전으로, 함경도 영흥 흑석리에 세워졌다. 이곳은 태조의 부친 환조가 살았던 곳으로 태조가 출생한 곳이라고 한다. 태조어진이 처음 봉안된 것은 1398년^{태조 7}이며, 여러 차례 중수되었다.



1911년 촬영 : 유리원판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096

097

078

개성 목청전^{穆淸殿}

Main hall of Mokcheongjeon, Gaeseong, Original Glass Plate Photo

개성의 태조진전은 개성 숭인문^{崇仁門} 안에 있는 태조의 옛 집터에 세워졌고 처음에는 계명전 ^{계명殿}이라 이름하였다가 1422년^{세종 4}에 목청전이라 개명하였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후, 1901년^{광무 5}에 복원되었다.



일제강점기 | 유리원판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경기전 제례

Gyeonggijeon Rituals

대향 大享, 6대 제향 대제는 1년에 6번, 설날 · 한식 · 단오 · 추석 · 동지 · 납일 臘日에 거행되었다. 삼헌 三獻, 술을 세 번 부어 올림 및 음복례 飲福禮까지 모든 제례 절차를 행하였다. 1908년 두번으로 줄여 청명과 추석에 지냈고, 광복이후에는 한번으로 줄여 동지에 지냈다. 1978년부터는 음력 9월 9일 중앙일로 바꾸어 대제를 지내고 있다.

작헌례 酌獻禮 작헌례는 어진의 이안, 또는 환안때 지내는 일종의 고유제 告由祭로서, 대제와 달리 일헌 一獻에 음복례가 없다.

분향례 焚香禮 분향례는 매달 식망 忌望, 초하루와 보름에 지낸다. 제수의 진설 없이 간단하게 분향 및 봉심을 겸하는 의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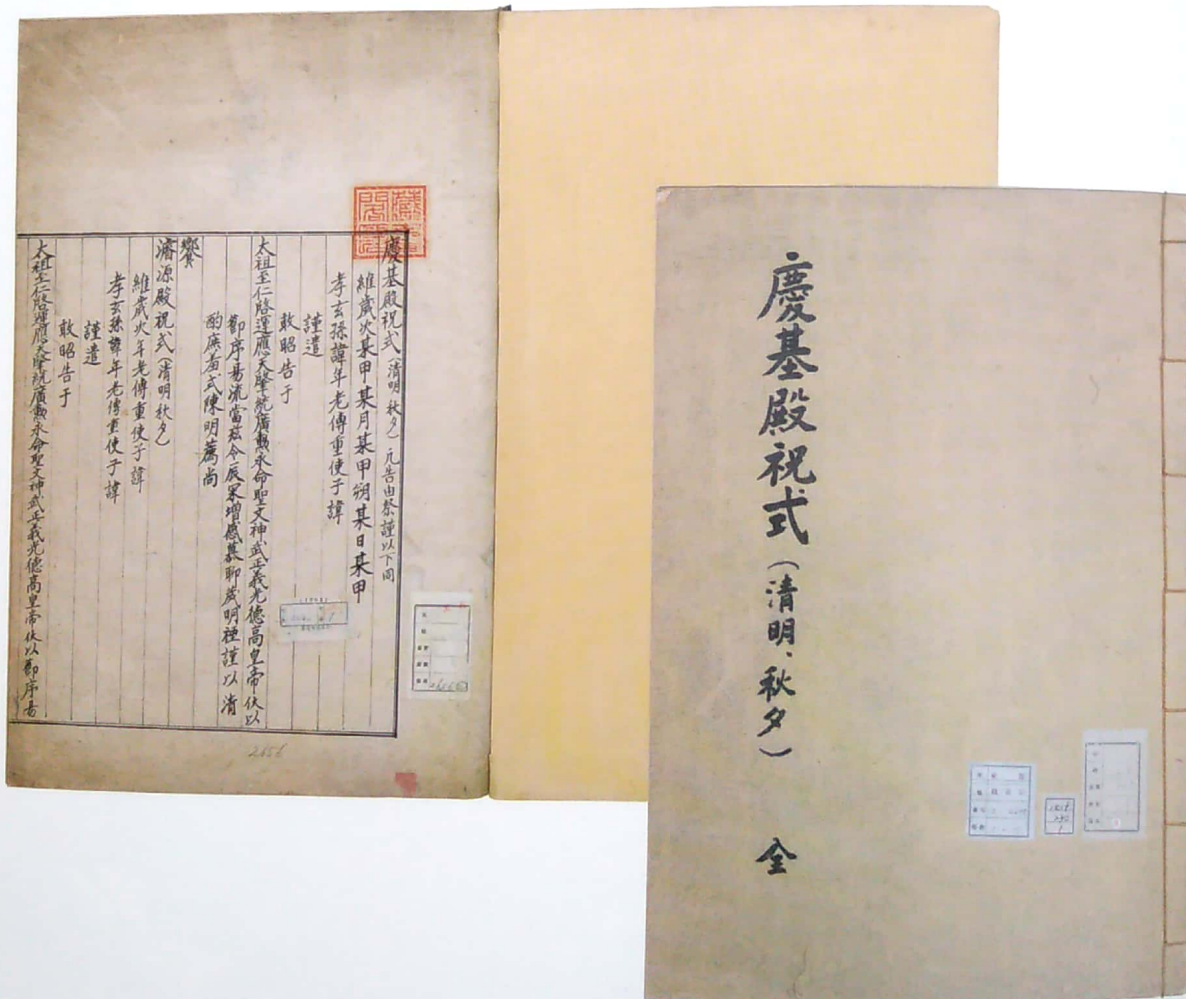
Daehyang: A ritual performed six times a year, i.e. Lunar New Year, Hansik (Cold Food Day), Dano (Beginning of the Fifth Month), Chuseok (Harvest Moon Day), Dongji (Winter Solstice), and Nabil (Hunting Day).

Jakheollye: A ritual performed in the event of relocation of the royal portrait.

Bunhyangnye: A ritual performed on the 1st and the 15th days of each month.



고종 때 만들어진 축문 형식으로 경기전, 준원전, 조경묘, 조경단, 준경묘, 영경묘 등의 제사에 활용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080

아가상 阿架床, 雅佳床

Aga Ritual Table, Gyeonggijeon

아가상은 준소상이라고도 불리운다. 술향아리 및 작^爵, 술간^爵을 올려 놓은 용도로 사용된다.



조선 | 목재 | 194.5 × 111

081

제사상

Ancestral Rites Table, Gyeonggijeon

제수를 진설하는 상으로, 신위전에 2개의 제사상을 맞대어 놓는다. 제향 때에는 휘건^{揮堅}을 두르고 좌면지^{좌면지}를 깔아서 사용하였다.



102

103

조선 | 목재 | 너비 100 높이 106



082

경기전 제기

Utensils used in Gyeonggijeon Rites

4. 경기전의 제례와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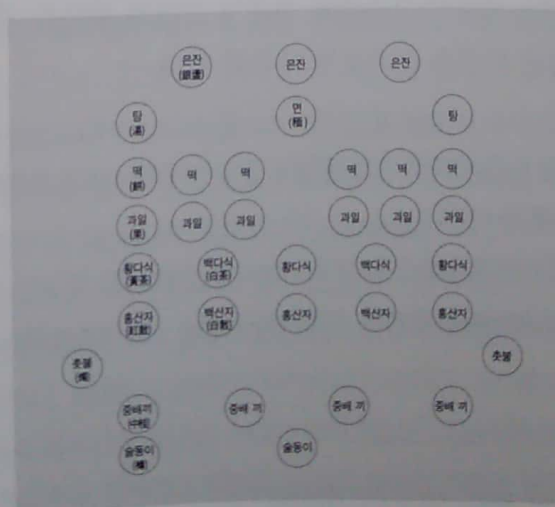
1) 제례

경기전 제례는 속절(俗節)에 지내는 대향(大享, 6대 제향), 어진 이안과 환안 때 지내는 작헌례(酌獻禮), 매달 삭망(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분향례(焚香禮)가 있다. 『경기전의』에 대향의, 작헌례, 분향례 의식절차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³²

대제는 속절에 지내는 절향(節享, 節祀)으로 1년에 여섯 번, 설날·한식·단오·추석·동지·납일(臘日)에 거행되었다. 정기적인 제사로 삼헌(三獻, 술을 세 번 올림) 및 음복례(飮福禮)까지 모든 제례 절차를 행하였다. 이러한 조선시대 6대 제향을 1908년에 이르러 두 번으로 줄여서 청명과 추석에 지냈고, 광복이후에는 한번으로 줄여 동지에 지냈다. 1978년부터는 동지 날씨가 추워서 음력 9월 9일 중양일로 날자를 바꾸어 중양절을 지냈다. 2002년에는 '중양대제'로 개칭하고, 2003년부터는 황제가 친히 행하는 제향절차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대제를 지내고 있다.³³

작헌례는 어진의 이안, 또는 환안 때 지내는 일종의 고유제(告由祭)로서, 대제와 달리 술을 한번만 올리고 음복례가 없는 간단한 의식이다. 분향례는 매달 삭망(朔望,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의식으로 제수의 진설 없이 간단하게 분향 및 봉심을 한다. 현재는 분향례를 매달 한번 초하루에 지내고 있다.

경기전 제수는 처음에 전라도 53개 읍에서 분정하여 마련하였다. 그러다가 1658년(효종 9) 각읍에 폐단을 우려해 전라도 4장관(長官)인 전주부윤, 남원부사, 나주목사, 광주목사가 순차로 돌아가면서 갖추어 내었으며, 1780년(정조 4)부터는 전주부에서 전담하였다.³⁴



진설도(陳設圖), 『국역 경기전의』

32) 『국역 경기전의』, 「대향의」·「작헌례의」·「분향의」
33) 최순권, 『경기전 제례와 제물 진설』, 『경기전과 조선왕실제례』, 전주역사박물관, 2010, 96쪽; 전주시, 『경기전-건축·의례와 유물』, 64쪽
34) 『宗廟改修錄』, 3, 경오(1780) 2월 6일; 『국역 경기전의』, 「제향의」, 전주시, 『경기전-건축·의례와 유물』, 81쪽